

“지역인재 자부심 갖고 꿈과 희망 펼칠게요”

전남 초록우산 아이리더 발대식

2009년부터 아이들 재능 지원 전남지역 42명 아동 선발 후원 재능개발 등 연 최대 1000만원 “경제적 어려움 없이 꿈 펼칠길”

“아이리더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꿈을 키워갈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나주 사학연금공단 세미나실에서 ‘아이리더 in 전남’ 발대식을 열고 아이리더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아이리더’는 취약한 경제 여건에 처한 아동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재능을 펼쳐나가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초록우산 인재양성사업이다.

발대식에는 아이리더와 보호자 및 김유성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장과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아이리더 김다혜(14)양이 식전 공연에서 판소리 실력을 선보이며 발대식의 문을 열었다.

김다혜 양은 “작년부터 아이리더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데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대회를 준비할 수 있어서 좋다”며 “오는 5월 열리는 서편제보성소리축제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나주 사학연금공단 세미나실에서 ‘아이리더 in 전남’ 발대식을 열고 신규 아이리더 42명을 임명했다. 윤준명 수습기자

새롭게 선정된 아이리더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과 꿈을 소개했다. 2020년부터 아이리더로 활동 중인 나종빈(17)군은 “초등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아이리더를 알게 됐는데 훈련비 걱정없이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지나해 여러 대회에 출전했으며 올해는 전국체전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멈추지 말고 폐달을

밟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소리를 알릴 게요” 등 희망찬 포부를 쏟아냈다.

선배 아이리더의 공연과 함께 토크쇼도 진행됐다. 지난 2011년 2기 아이리더부터 지원을 받은 장신행(24)씨는 첼로 공연으로 무대를 장식했다.

장씨는 후배 아이리더들이 작성한 질문에 답변하며 좋은 점과 슬럼프·좌절 등 힘들었던 점에 대해 들려줬다. 그는 “좌절

해도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해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유성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장은 “아이리더에 선발됐다는 건 능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았다는 걸 의미한다”며 “자신감을 가지고 큰 꿈을 펼칠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은 지난 2009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의

재능을 발전시켜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매년 아이리더를 선정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7세~24세 중학업,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선발하고 연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남지역에는 이전부터 지원을 받던 아동 27명과 새롭게 뽑힌 아동 15명이 더해져 총 42명(예술 18·체육 18·학업 6명)이 신규 아이리더로 선정됐다.

이들은 연간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재능개발비를 지원받는다.

아이리더는 매년 전국아동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남지역본부에서 발대식이 열리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이날 발대식은 아이리더로서 공식적으로 임명된 자리다. 자부심과 소속감을 고취 시키고 스스로 꿈과 재능을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유성 초록우산 본부장은 “이번에 아이리더로 선발된 아동들이 자부심과 용기를 갖고 꿈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다”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신의 재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술, 체육, 학업, 자율 분야에 재능이 있는 아이리더를 선발해 총 1474명의 아동에게 235억원을 지원했다.

정상이 기자·나다운·박한·윤준명 수습기자

‘5·18 북한 특수군 침투설 거짓’ 정부조사서 인정

지만원 책자 등 42개 증거 검증 사진 판독 오류 등 ‘허무맹랑’

5·18 왜곡 중심에 있던 ‘북한특수군 침투설’은 거짓이라는 사실이 정부 조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지만원 등 왜곡 핵심 세력이 각종 사진 및 자료들을 미흡한 군사 지식으로 잘못 해석해 허무맹랑한 주장을 늘어뜨린 것에 불과했다는 분석이다.

3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전날 발표한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의 광주일원 침투 주장사건’ 개별조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조사결과를 밝혔다.

조사위는 북한군 개입 주장의 핵심 인물인 지만원이 책자 등을 통해 제기한 ‘42개 증거’를 위주로 검증했다. 그 결과, 해당 주장은 사진 판독의 오류와 미흡한 군사 지식, 당시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겹쳐 발생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이거나 본인의 주장에 유리한 방향으로자의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일명 ‘광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 드러났다. 지만원은 5·18 당시 찍힌 사진 속 한 시민군을 북한특수군 ‘광수’라며, 영상분석기술을 이용해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위는 해당 영상분석기술이 두 인물사진에 선을 긋고 도형을 만든 수준에 불과하며,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밖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5월21일

4시간 만에 전남 17개 시·군에 위장된 44개의 무기고를 털었다”, “북한군이 교도소를 공격했고 그중 475명이 폐죽음을 당했다”, “시위의 지휘자가 대한민국에 없으며 북한의 민주투쟁위원회가 시위를 지휘했다”는 등의 주장도 최소한의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주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사위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1999년 북한을 방문한 당시 애국열사릉에 5·18 가담 북특수공작원묘역이 조성돼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당사자에게 “당시 봤던 묘비의 숫자가 적어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다

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5·18에 관계된 고정간첩의 묘로 보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한편, ‘5·18은 북한에서 과격한 특수부대원들이 군중들을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다’는 북한특수군 침투설은 지난 2002년 지만원이 동아일보 광고에 이같은 주장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임천용, 이주성 등 일부 탈북자들이 월간지 기고, 기자회견, 방송 출연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의 주장을 다시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지만원이 다수의 관련 책자를 발간하는 등 북한특수군 침투설은 20년 넘게 이어지면서 5·18 폄훼·왜곡의 깊은 뿌리가 됐다. 강주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4월 5일(금) ~ 6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투표

4월 10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후보자 정보 확인
info.nec.go.kr



정책·공약 확인
policy.nec.go.kr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
debates.go.kr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땀방울이 모여 지켜지는 소중한 권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